

북한 기도회

2024년 9월



1.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압록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로 인해 신의주시와 의주군을 비롯한 평안 북도와 만포시 등 자강도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이 어렵지만 수해 규모로 미뤄 볼 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며, 가옥과 논밭의 침수로 인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북한 당국은 지도자의 애민정신을 부각시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외부의 지원은 거부하고 자력으로만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되고 원활하게 수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통일부 "북한 압록강 홍수로 상당한 인명피해 가능성"



2. 선교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국경지역의 현장 사역자와 북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제목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홍수와 관련하여 제 3국 북한 여성들도 크고 작은 피해와 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압록강 하류 뿐 아니라 두만강 유역에서의 홍수 피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족들의 비보를 듣고 망연자실해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 안에서 위로받고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북한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이들과 함께하는 현장사역자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시고 안전하게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북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송된 신자들과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내 지하교회 적발 사건들이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행방이 묘연해진 가구들을 고려할 때 예상 피해 규모가 적어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붙잡힌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4.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가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억류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들의 구명을 위한 한국 교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가 언론을 통해 석방을 촉구하기도 하였고, 북한인권NGO를 통해 관련 유엔 기구에 임의구금 심의 요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갇힌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억류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5. 해외 북한선교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간첩혐의로 체포되신 백 선교사님의 구금기간이 9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백 선교사는 2월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수감 중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사역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모 선교사가 수감된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

6. 북한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동안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 체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무시받던 여성들이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라 북한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화적 제약이 남아있는 가운데 여성들에게 가계 경제와 국가 노동력 및 인구문제까지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에게 하루 속히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들이 가진 폭넓은 관계망을 통해 북한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에 채류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과 해외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도 안전하게, 힘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북한 주민 의식 변화가 복음을 수용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올해 초 오랜 기간 임금 체불에 반발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출신성분을 가진, 그리고 철저한 통제아래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당국에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거에는 당과 수령, 국가에 충성하는 것만을 배우고 알았던 북한 주민들이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당과 수령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믿었던 국가로부터 실망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